

보도자료

재무부, “2015 년에 균형 재정 달성할 것”으로 확인

2014 경제실천계획, 2015 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일자리와 성장, 온 국민에 대한 기회 창출을 위한 건실한 공공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

2014년 2월 11일 오타와

재무부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은 오늘 2014 경제실천계획(Economic Action Plan 2014, 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2015 년 균형 예산 회복 목표가 순항 중임을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신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낮은 세금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애용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호하면서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여정에서 올바른 단계에 진입해 있다.

계획에 따르면 연 30 억 달러의 위험충당금을 감안할 경우 캐나다 가정과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세금의 추가 없이 2014-15 년에 재정 적자가 29 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16 년도에는 연 30 억 달러의 위험충당금 반영 시 64 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예측하고 있다.

2009 년도 캐나다 경제실천계획의 구상 이래, 캐나다는 서방 선진 7 개국, 즉 G7 국가 가운데 최대의 일자리 창출기록 및 최고의 경제 실적을 달성해왔다.

2014 경제실천계획은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고용 및 성장 지원:

- 캐나다 취업 보조금(Canada Job Grant)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된 일자리 연결 서비스(Job Matching Service)를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준다.



- 견습자 대출(Canada Apprentice Loan)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레드실(Red Seal) 직종에 해당하는 교육생들의 직업훈련 비용 지원.
- ‘퍼스트 네이션 교육 통제권 법’을 통한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들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원주민 거주지 내 교육제도 개선에 투자한다.
- 고령 근로자 및 장애인들의 노동 시장 접근 지원 사업에 투자한다.
- 고용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유급 인턴십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한다.
- 자동차 부문 지원을 위한 5억 달러 상당의 투자 및 임업과 광업, 기타 여러 부문에 대한 투자를 실시한다.
- 고등 교육 기관의 연구를 지원하는 캐나다 퍼스트 연구기금(Canada First Research Excellence Fund)에 대해 향후 10년에 걸쳐 15억 달러에 상당하는 연구 기금을 제공한다.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 통신 시장의 경쟁과 저렴한 통신 요금을 장려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국-캐나다 간 부당한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한다.
- 각종 청구서를 우편 수령 시 유료화(pay-to-pay billing)하는 관행을 근절한다.
- 입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캐나다 가정의 입양 비용 부담 절감을 돕는다.
- 침술과 자연요법의사의 서비스에 대한 GST/HST 면세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한다.
- 3억 9천만 달러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캐나다 가정의 식품 안전을 강화한다.
-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로 벽지 및 캐나다 북부 지역에 대한 보다 빠른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자연재해 피해 완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충격에서 국민을 보호한다.
- 위험을 감수하면서 캐나다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수색·구조 자원봉사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뜻에서 수색·구조 자원봉사자 소득세 공제혜택을 신설한다.
- 장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현대의 참전 군인들이 존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재정 균형을 위한 노력:

- 공무원에 대한 각종 급여의 합리화 및 비용 부담 관리를 위한 제안(proposal)을 통해 연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direct program spending)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해 나간다.

- 임직원과 연금 플랜 비용 50:50 공유를 실시하고 신입 직원들의 퇴직 연령을 높이기 위해 국영기업(Crown corporation)들과 공조한다.

정부는 경제실천계획 2014 와 함께, 고용 시장의 최신 동향, 캐나다 노동 인구의 교육과 기술(skills) 수준, 인력이 부족한 기술 부문을 파악, 검토하는 “고용 보고서: 캐나다 노동 시장 현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또한 국민들의 스킬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간략 정보

- 캐나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왔으며 경제 위기(recession)의 최저점 대비 현재 1 백만 명 이상이 노동 시장에 추가되었다.
- 2006 년 이래, 캐나다는 줄곧 G7 국가 중에서 1 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 전체 소득 수준을 통틀어 캐나다 가구의 세후 및 양도 후 실질 소득은 2006 년 이래 약 10% 이상 증가해왔다.
- 캐나다 국민들은 전체 소득 수준을 통틀어 정부가 도입한 세금 감면 혜택을 입었으며, 중·저소득층의 캐나다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받았다.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인해 평균적인 4 인 가구의 세금 부담은 현재 3,400 달러가 절감되었다.
- 현재 캐나다는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계속해서 AAA 등급 및 안정된 전망의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국가의 하나이다.
- 캐나다가 GDP 대비 정부 순 부채 비율을 G7 국가 중에서 단연 최저로, 또한 G20 선진국 중에서 최저국 중 하나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위기 전에 부채를 상환하고 지출을 관리한 데 힘 입은 바 크다.

“캐나다는 재정적 책임감이 강하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과 경제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올바른 평판을 받고 있다. 2014 경제실천계획은 우리의 접근법이 효과적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며 국민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2015 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의 ‘계획’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에, 캐나다의 최대 자산인 국민들에게 투자하면서 동시에 낮은 세금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다음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다.”

—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

관련 문건

- 고용 보고서: 캐나다 노동 시장 현황(*Jobs Report: The State of the Canadian Labour Market*)

- 배경 자료: “균형을 향한 길 (The Road to Balance)”
- 배경 자료: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 배경 자료: “일자리와 성장(Jobs and Growth)”
- 경제실천계획 2014 개요(EAP 2014 overview) 동영상

- 30 -

언론사 문의처:

Marie Prentice
Press Secretary
Office of the Minister of Finance
613-996-7861

Jack Aubry
Media Relations
Department of Finance
613-996-8080

모든 보도자료에 대한 이메일 통지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십시오.

www.fin.gc.ca/scripts/register-eng.asp.